

설문조사 보고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유지보수 서비스 가치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 기업 인사이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사용 기업에서는 높은 총소유비용(TCO)과 낮은 업데이트 가치로 인해 오픈소스 및 클라우드 대안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풋프린트(점유율)를 줄이는 등의 비용 최적화 전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개요	3
배경	4
설문조사 목표 및 방법론	5
설문조사 분석	6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전략의 앞날을 위한 다섯 가지 권장 사항	14
참조	15

개요

리미니스트리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인사이트를 뒷받침합니다.

인사이트 01

설문조사 응답자의 **68%**가 최신 릴리스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3/4(75.5%) 이상의 응답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보유한 인스턴스 수가 100개를 넘는 응답자는 지난 2017년 설문조사 당시에 비해 7%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인스턴스 수가 늘어난 것도 최신 릴리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사이트 02

응답자의 **73%**는 2020년 12월 현재 오라클에서 전반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중단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보유하고 있다(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1/4 이상은 2020년 12월 이후부터 어느 릴리스가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혼동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사이트 03

응답자의 **97%**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드는 비용이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거의 83%는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에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비용이 적어도 타당한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2017년 같은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답한 응답자 수와 비교해 50%나 감소했습니다.

인사이트 04

응답자의 **73%**는 데이터베이스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했고, 1/4(26.3%) 이상은 가치 있는 오라클 개선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인사이트 05

응답자의 **41%**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풋프린트(점유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설문조사 대비) 5배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 그룹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애로사항으로 높은 비용과 라이선스 규정 준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69%는 오픈소스 및 기타 오라클 이외 클라우드 옵션으로의 전환을 고민 중이거나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

지난 몇 년간 데이터베이스 업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매출 면에서 여전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고객 기업에서 비용을 최적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며 규정 준수 문제를 피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인기가 대폭 꺾인 듯합니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OSDBMS)은 크게 발전하였으며, 가트너는 “2022년경 새로 개발되는 사내 애플리케이션의 70% 이상은 OSDBMS 또는 OSDBMS 기반 dbPaaS 형태일 것...”¹이라고 예측합니다.

물론, 한계는 존재합니다. 오라클, SAP 및 기타 공급업체의 일부 ERP 애플리케이션에는 OSDBM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트너에서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이선스 유저는 높은 비용, 필수적인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프로그램, 라이선스 규정 준수 등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설문조사 응답자의 41%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풋프린트(점유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더불어, 2021년 6월에는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릴리스 중 두 개만 제외하고 모두 Sustaining 유지보수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오라클의 평생 유지보수 정책에 따르면 오라클 Sustaining 유지보수 단계에 돌입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 업데이트, 수정 사항, 보안 알림, 데이터 수정 사항 및 중요 패치 업데이트
- 신규 업그레이드 스크립트
- 새 오라클 또는 타사 제품/버전으로 인증²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1 및 그 이전 릴리스는 이미 Sustaining 유지보수 대상이며, 11.2 릴리스도 2020년 12월 말경 오라클 Sustaining 유지보수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³

12.2.0.1의 경우, 2020년 11월 말에 오라클 Sustaining 유지보수 대상이 됩니다(오라클에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한된 오류 수정 기간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서비스는 심각도(Severity) 1 수정 사항 및 보안 문제 해결에만 해당됨).⁴

부분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로 인해 운영 및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에서는 최근 전 세계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사용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기업에서 직면한 주요 난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전략, 오픈소스 및 오라클 이외 클라우드 옵션을 비롯한 향후 데이터베이스 계획에 관한 데이터와 인사이트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목표

본 설문조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라이선스 사용 기업의 최우선 선결과제 및 현재 오라클과의 관계
- 오라클 유지관리, 유지보수 및 신기능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 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상세 정보와 2020년 12월로 다가온 특정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전체 지원 종료 날짜를 앞두고 향후 오라클 투자에 관한 각 응답자 기업의 계획⁴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대안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계획 및 그 이유
- 시장별 동향 비교

방법론

본 보고서에는 2020년 2분기에 리미니스트리트에서 237명의 응답자(IT 관리자, IT 실무자, IT 개발자, CIO/CTO/CDO,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및 관리자, 구매/금융 전문가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답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북미, 남미, 유럽과 아시아의 18개국에서 여러 업종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데이터 비교 및 동향 정립을 위한 기준으로 참조하였습니다.

직책

IT 관리자	54%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및 관리자	16%
CIO/CTO/CDO	9%
IT 실무자	7%
IT 개발자	7%
구매 및 금융 전문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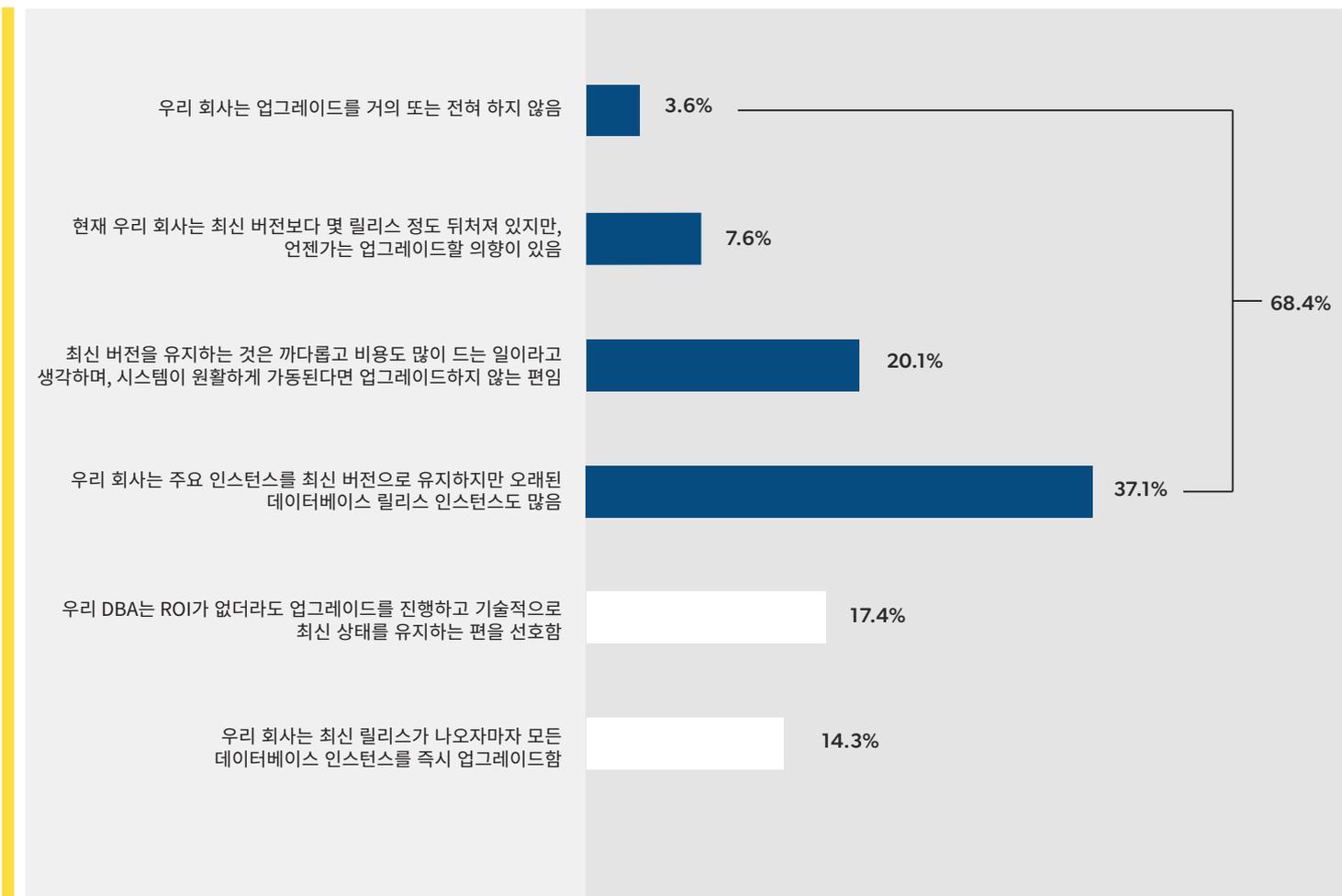
설문조사 분석

인사이트 01

설문조사 응답자의 **68%**가 최신 릴리스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3/4(75.5%) 이상의 응답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보유한 인스턴스 수가 100개를 넘는 응답자는 지난 2017년 설문조사 당시에 비해 7%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인스턴스 수가 늘어난 것도 최신 릴리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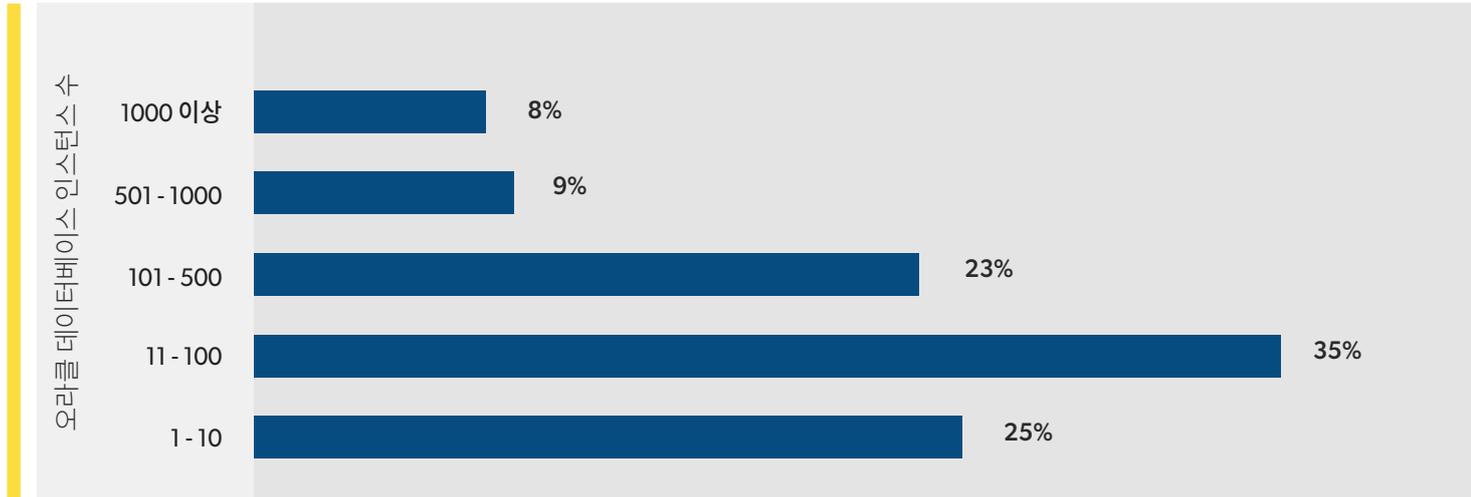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업그레이드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릴리스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 비용 및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기존 보안 패칭 방법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구버전이 취약점에 노출되며 이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다음 인사이트에서 다룹니다.

다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방법 중 귀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보유한 인스턴스 수가 100개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7% 증가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인스턴스를 10개 이상 보유한 업체 비율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인스턴스 수가 늘어나면서 오라클의 릴리스 주기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

귀사에서 보유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몇 개입니까?



응답자의 **73%**는 2020년 12월 현재 오라클에서 전반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중단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보유하고 있다(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1/4 이상은 2020년 12월 이후부터 어느 릴리스가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혼동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거의 3/4이 2020년 12월에 유지보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또는 제외될지 모르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대부분 응답자 기업이 오라클에 값비싼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을 계속 지불하면서 중대한 보안 및 운영상의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라클 평생 유지보수 정책에 따르면, 2020년 말에 Sustaining 유지보수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말은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다음과 같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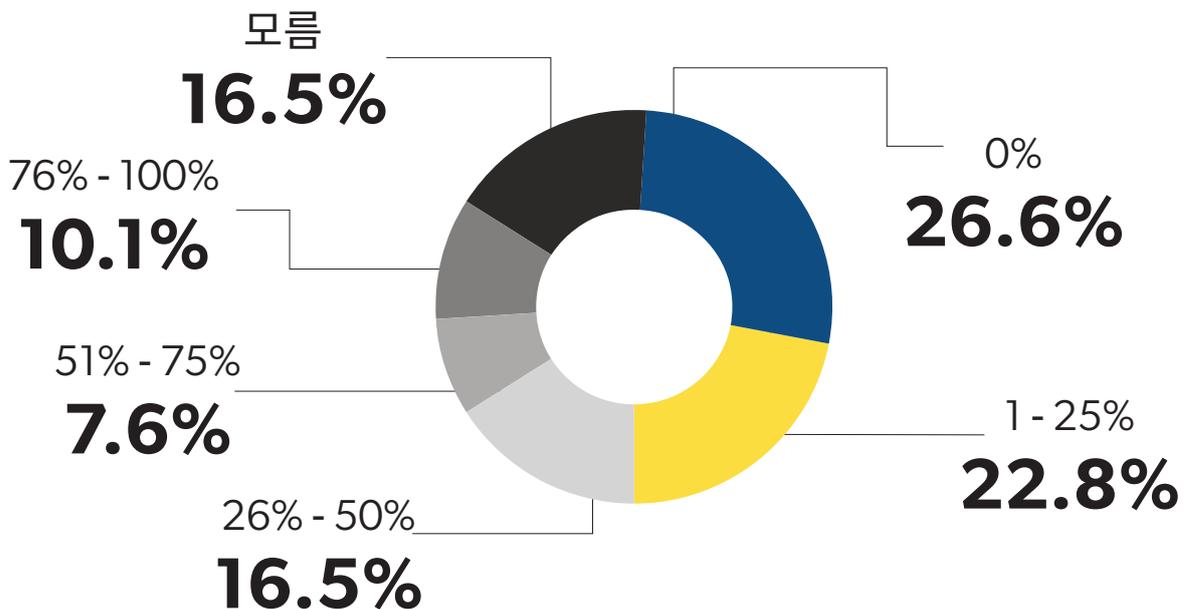
- 새 업데이트, 수정 사항, 보안 알림, 데이터 수정 사항 및 중요 패치 업데이트
- 신규 업그레이드 스크립트
- 새 오라클 또는 타사 제품/버전으로 인증²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1 및 그 이전 릴리스는 이미 Sustaining 유지보수 대상이며, 11.2 릴리스도 2020년 12월 말경 오라클 Sustaining 유지보수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³

12.2.0.1의 경우, 2020년 11월 말에 오라클 Sustaining 유지보수 대상이 됩니다(오라클에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한된 오류 수정 기간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서비스는 심각도(Severity) 1 수정 사항 및 보안 문제 해결에만 해당됨).⁴

Sustaining 유지보수 단계에 돌입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라이선스 사용 기업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유지보수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오래된 수정 사항, 파일과 패치만 받는 대가로 라이선스 비용의 22%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응답자의 97%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높은 비용이 주요 난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는 점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2020년 12월에 전반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응답자도 1/4이 넘었습니다. 오라클 문제점에 관한 답변에서 반영된 바와 같이, 부분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는 기업이 보안 사고에 노출될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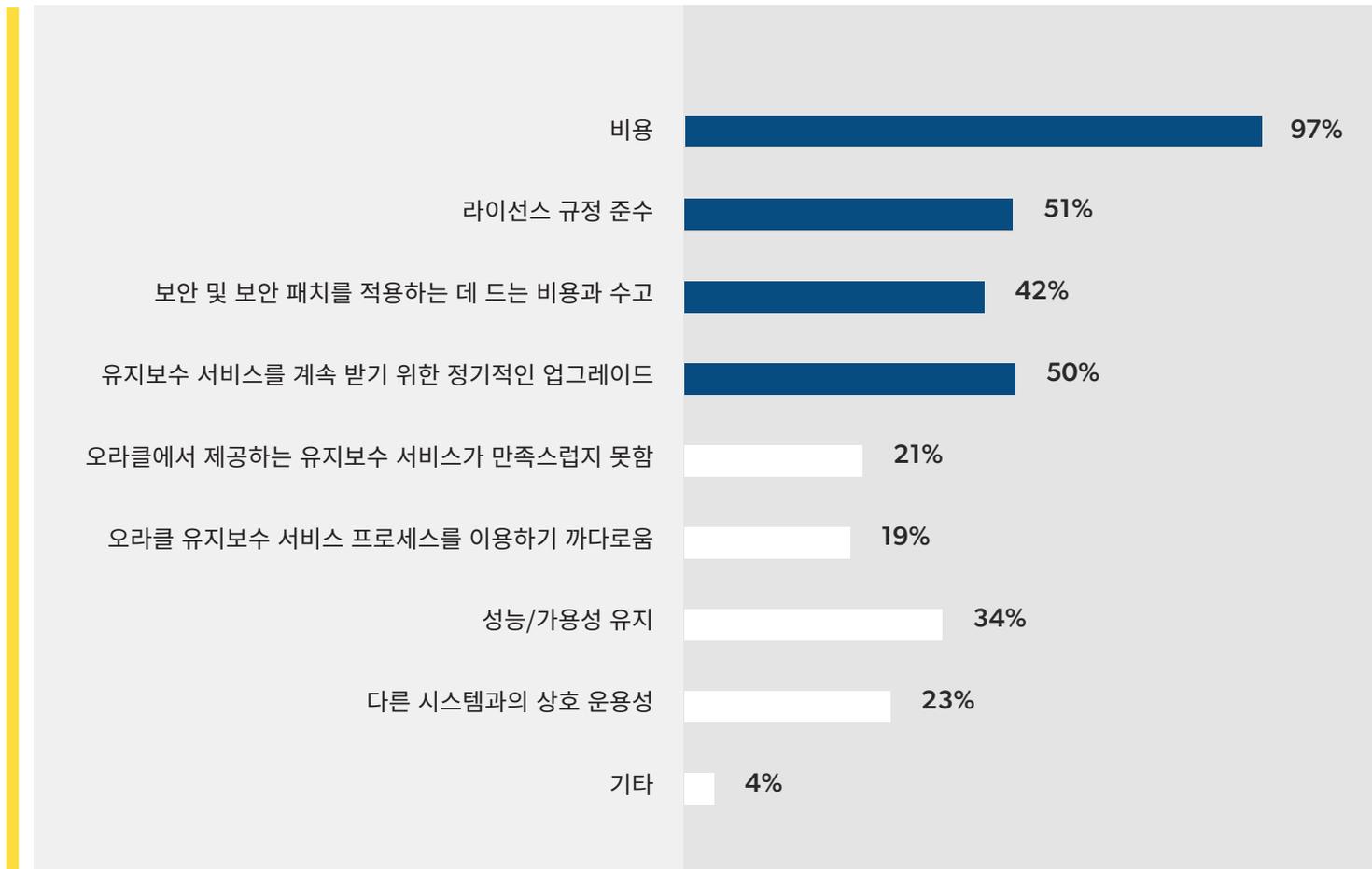
귀사에서 보유한 오라클 DB 인스턴스 중 릴리스 11.2 이전 버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5가지 주요 문제점 중 2가지인 "보안 및 보안 패치 적용에 드는 비용과 수고", 그리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한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는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관련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비용 및 라이선스 규정 준수 문제로 인해 수많은 라이선스 사용 기업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풋프린트(점유율)를 줄일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인사이트 5번 항목 참조).

앞서 인사이트 1번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업그레이드를 배포하지 않으면 기업이 보안 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고, 가상 패칭과 같은 다른 위험 완화 전략을 배포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패치 없이 방치됩니다. 그러나 오라클의 공급업체 중심 로드맵을 따르고, 오라클 일정에 맞춰진 무의미한 업그레이드는 혁신과 디지털 변혁 활동에 배포하는 편이 더 바람직한 예산과 리소스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3대 난제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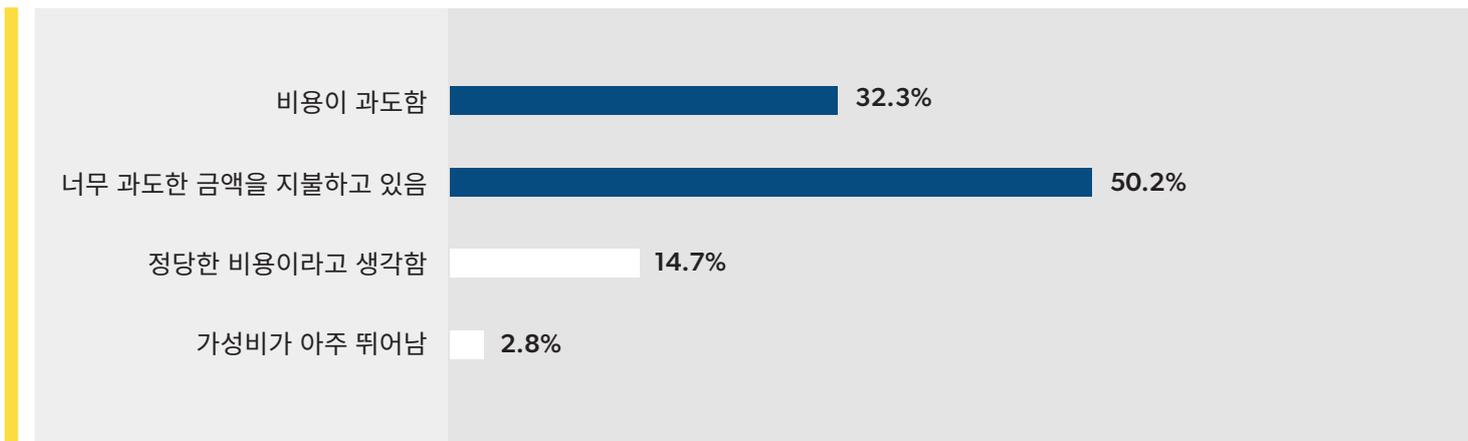
응답자의 **97%**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드는 비용이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거의 83%는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비용이 적어도 타당한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2017년 같은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답한 응답자 수와 비교해 50%나 감소한 결과입니다.

2017년 설문조사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3였습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비용이 타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이번 설문조사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 라이선싱과 유지보수 서비스가 변경되면서 과도한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거의 16% 증가하여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83%에 육박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높은 비용이 주요 난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울 정도(97%)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한 필수 업그레이드 및 성능 유지보수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및 유지관리 비용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예산과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이 점점 늘어나자 고객 기업에서는 더 우수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서비스 및 유지관리 비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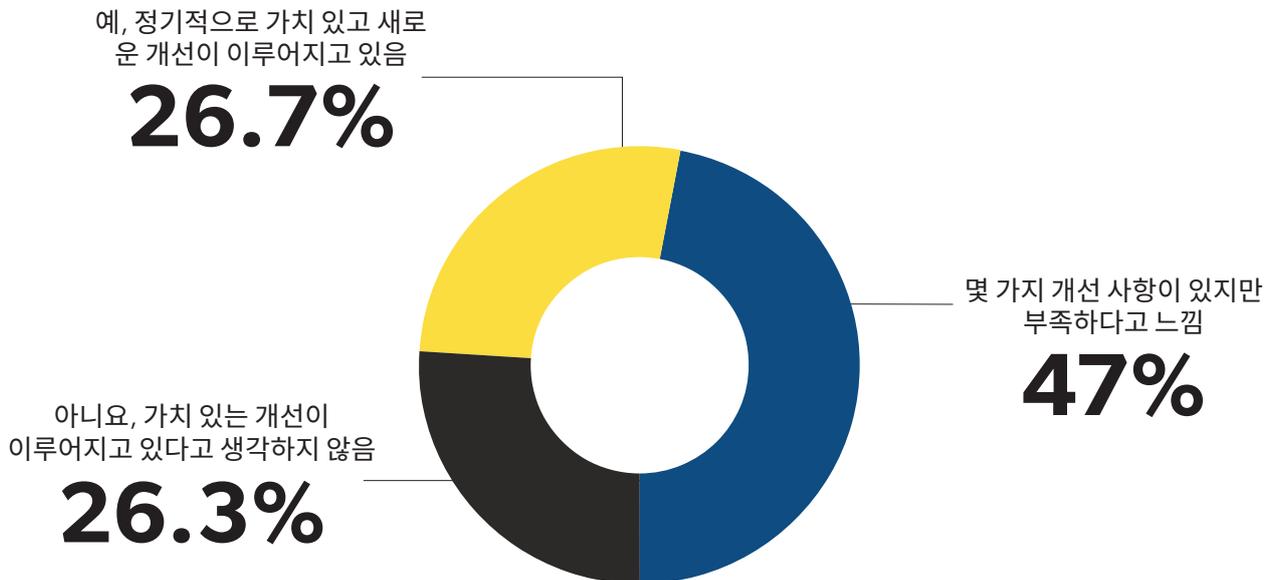
응답자의 **73%**는 데이터베이스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했고, 1/4(26.3%) 이상은 가치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개선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상당한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능 개선을 위해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라클에서는 전반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계속 부담을 주고 있지만, 응답자 네 명 중 한 명(26.3%)꼴로 업그레이드에 들이는 시간과 수고에 비해 가치 있는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답했으며 거의 절반(47%)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많은 개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문항 "다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방법 중 귀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에서 언급했듯이, DBA의 기술적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업데이트할 뿐이며 업그레이드로부터 ROI를 거의 얻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다섯 명 중 한 명(17.4%)꼴이었습니다.

물론 비용은 가치와 관련되고 개선 사항 미흡이라는 문제점은 높은 비용이 주요 난제라고 답한 응답자가 97%에 달했다는 데서 다시 한 번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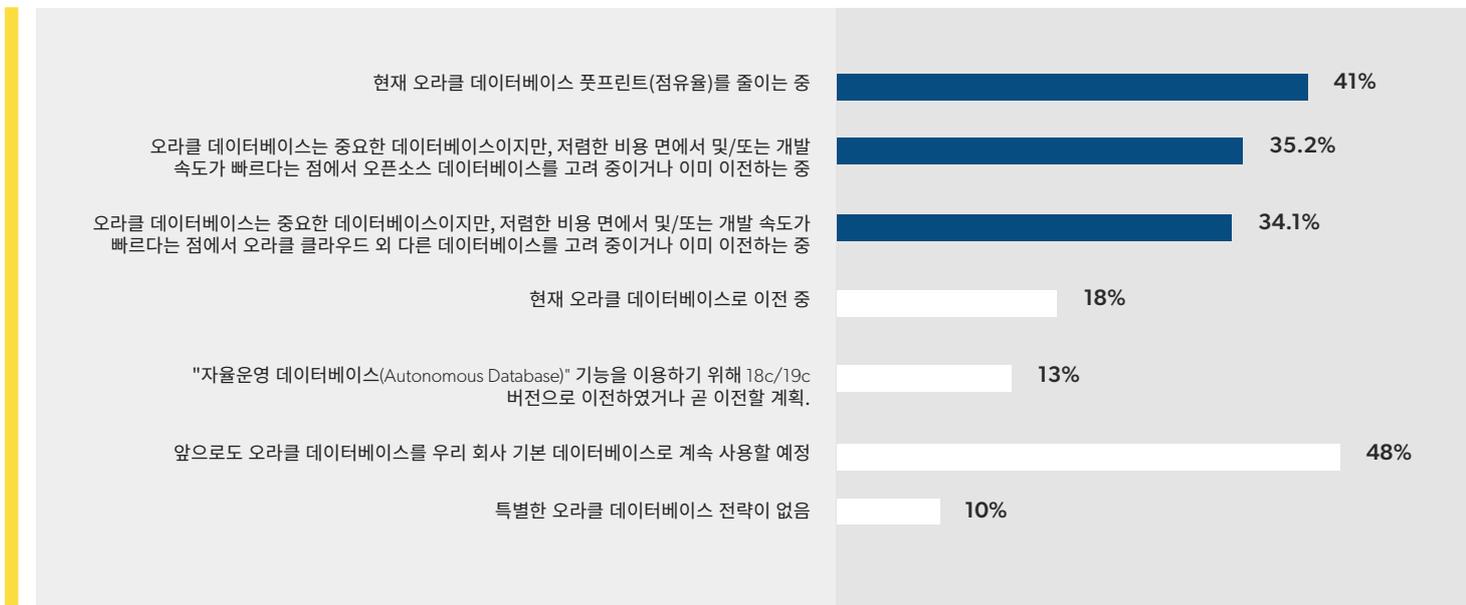
귀사는 현재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사용 중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여전히 가치 있고 새로운 개선 사항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41%**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점유율)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설문조사 대비) 5배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 그룹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애로사항으로 높은 비용과 라이선스 규정 준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69%는 오픈소스 및 기타 오라클 이외 클라우드 옵션으로의 전환을 고민 중이거나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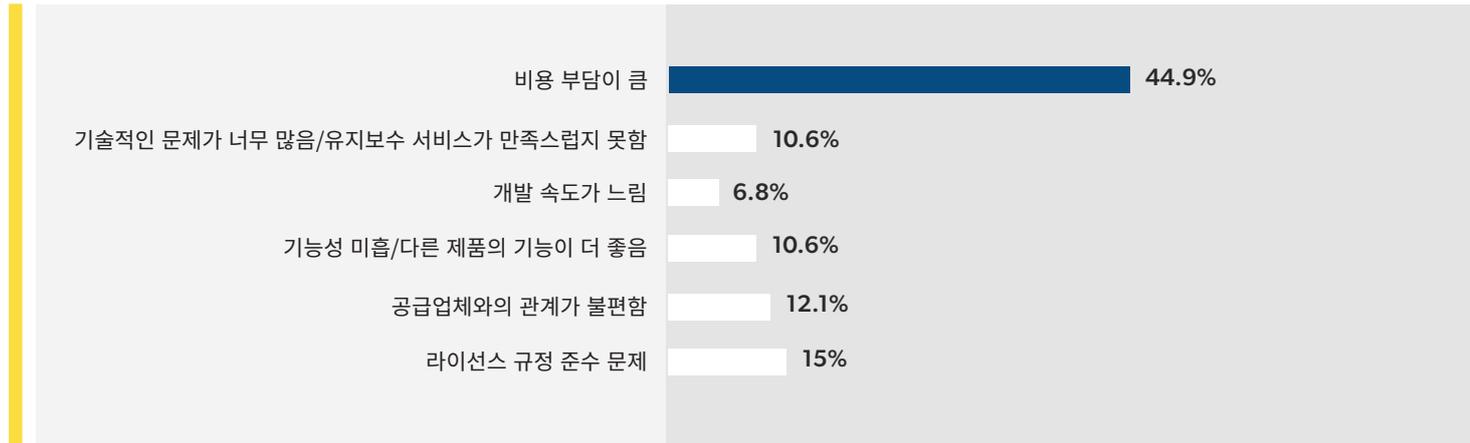
2017년 설문조사 이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점유율)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8%에서 무려 41%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매매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시중에 340여 가지의 상용, 오픈소스 및 클라우드 대안 데이터베이스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⁵

다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전략 중 귀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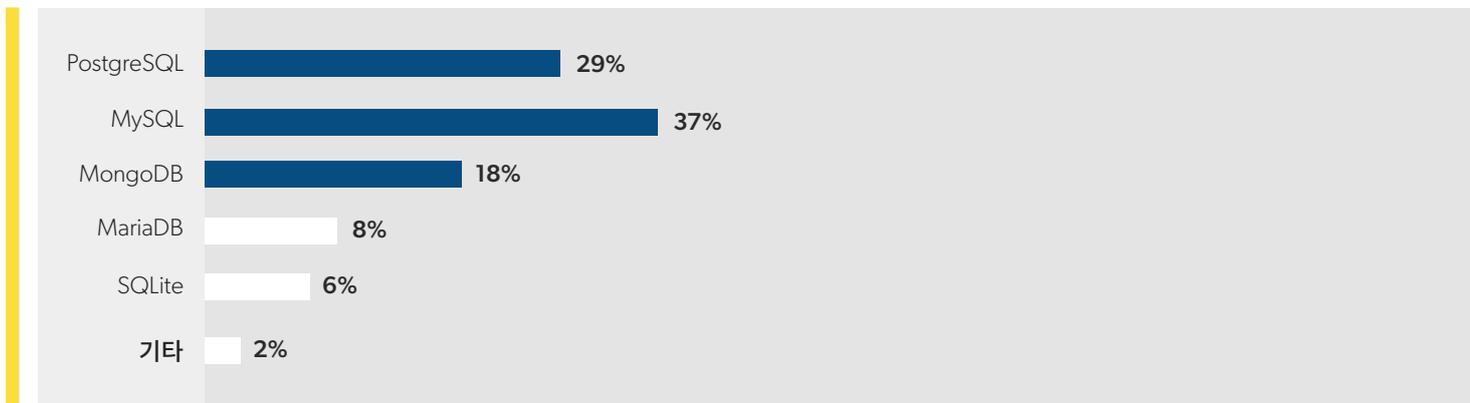
기업에서 오라클 풋프린트(점유율)를 줄이게 된 원인 중 1위는 '비용'이지만, 이외에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품질 문제(라이선스 규정 준수, 기술 및 관계 문제, 느린 개발 속도 및 기능)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라이선스 규정 준수 문제는 보통 공급업체에 수익을 창출(비용 인상)하고 공급업체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 프로세스가 다소 난해할 수 있으므로 응답자의 54.6%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케이스가 발생하면 보통 오라클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귀사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풋프린트(점유율)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오픈소스 및 오라클 이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모색하는 데는 비용 절감, 결과 도출 시간 단축 및 라이선스 규정 준수 문제 방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계 동향에 따라 오픈소스 및 오라클 이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대안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이 2017년 대비 23%나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고려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3(35.2%)을 넘었으며 그중 가장 보편적인 답변으로는 MySQL, PostgreSQL 및 MongoDB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귀사에서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고민 중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전략의 앞날을 위한 5가지 권장 사항

01

전반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오라클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의 ROI를 평가하세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개선 사항과 유지보수 서비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3자 유지보수 서비스와 같은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알아보세요.

0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시정하세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릴리스를 검토하여 앞으로 몇 달 내에 오라클에서 전반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종료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현재 사용 중이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릴리스는 운영 및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자 유지보수 서비스는 8이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릴리스에도 최소 15년간의 전체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3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알아보세요. PostgreSQL, MongoDB 및 Amazon 등을 새로운 IT 프로젝트에 활용하거나, 일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적절한 전략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커뮤니티/자체 지원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여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공업체를 알아보세요.

04

공급업체 중심 로드맵이 아닌 비즈니스 중심 로드맵을 따라야 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종료가 로드맵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인 유지보수를 계속 받기 위해 필요한 업그레이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평가하세요. 또한 무의미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라클에서 요구하는 고가의 유지관리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것이 합당한지, 또는 혁신에 재투자할 물꼬를 터줄 다른 유지보수 서비스를 알아보아야 하는지 고민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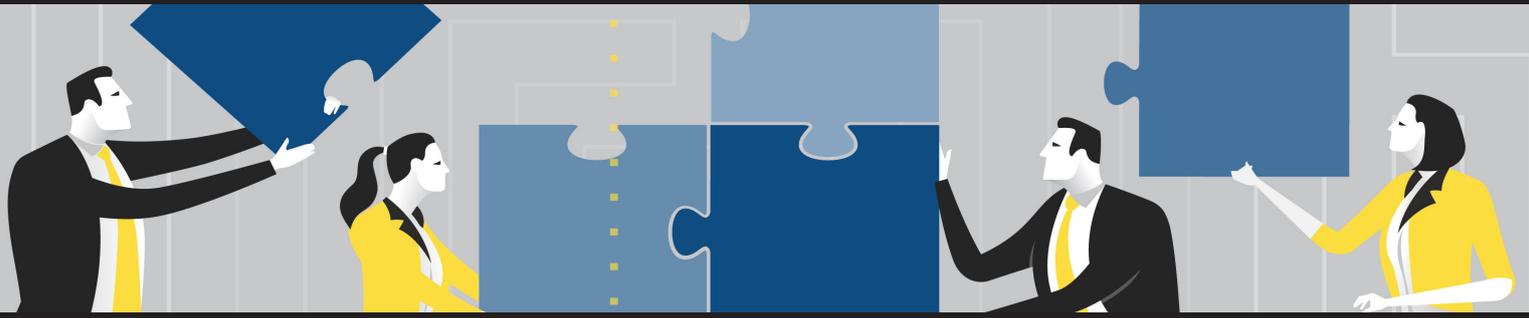
05

재정적 강점과 주도권을 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을 최대 90% 절감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존 투자를 더 유용하게 활용하고, 원하는 속도에 맞춰 직접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자 유지보수 서비스는 필수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 없이 최소 15년간 모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릴리스에 적용됩니다. 또한 SAP, EBS, JD 에드워즈 및 피플소프트와 같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는 ERP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¹가트너: 2019년 오픈소스 DBMS 시장 현황, 2019년 10월 17일.
- ²평생 유지보수 정책, 오라클 기술 제품 적용 범위, 2020년 9월.
- ³평생 유지보수 정책, 오라클 기술 제품 적용 범위, 2020년 9월.
- ⁴평생 유지보수 정책, 오라클 기술 제품 적용 범위, 2020년 9월.
- ⁵ <https://db-engines.com/en/ranking> 검색 날짜: 2020년 8월 21일.



Rimini Street®

riministreet.com/kr
enquirykorea@riministreet.com
twitter.com/riministreet
[linkedin.com/company/rimini-street](https://www.linkedin.com/company/rimini-street)

리미니스트리트(Nasdaq: RMNI)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오라클 및 SAP 소프트웨어 제품에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Salesforce®파트너 업체이기도 합니다. 당사에서는 대응 능력이 극히 뛰어난 최고급 통합형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기업에서 비용을 대폭 절약하고 혁신을 위한 여유 리소스를 확보하며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견기업, 공공 부문은 물론 다양한 업종의 기타 기업 조직과 단체에서도 리미니스트리트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 2020 Rimini Street, Inc. All rights reserved. "리미니스트리트"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리미니스트리트의 등록상표이며 리미니스트리트 로고 및 그 조합과 TM이 표시된 기타 기호는 모두 리미니스트리트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각 소유주의 재산이며,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리미니스트리트는 본문에서 언급된 모든 상표 소유자 또는 기타 업체와의 제휴관계, 홍보 또는 연관관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Rimini Street, Inc. ("리미니스트리트")에서 작성한 것이며 오라클, SAP SE 또는 기타 모든 관계자가 후원 또는 홍보하거나 그들과 제휴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달리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리미니스트리트는 본문에 제시된 정보와 관련하여 각종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 보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상업성 또는 특정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암묵적인 보증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본문에 제시된 정보를 사용/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직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특수 또는 우발적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제삼자가 제공한 각종 정보의 정확도 또는 완전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내세우거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각종 정보, 서비스 또는 제품을 언제든지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LR-72302 | KR-120720